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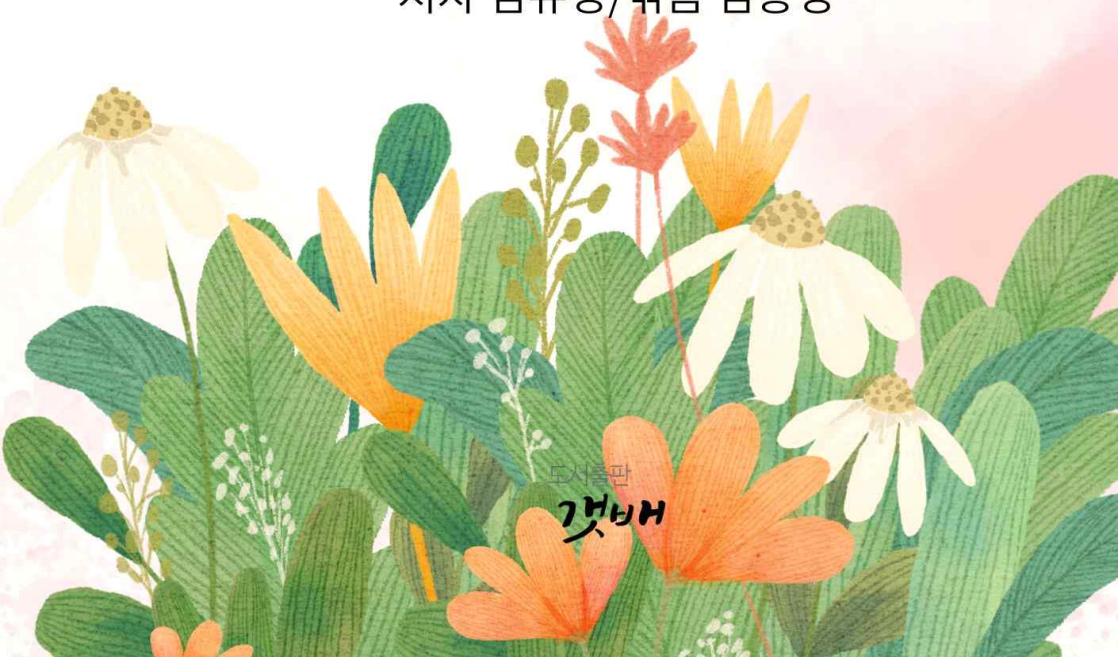
김유정의 단편소설

「동백꽃」 원문 전문 수록
작품을 읽고 쓴 감성 에세이

동백꽃

웃음이 먼저 오고
마음은 늦게 따라왔다

저자 김유정/엮음 김종성



도시출판
갯배

「동백꽃」 - 웃음이 먼저 오고 마음은 늦게 따라왔다

지은이 김유정

펴낸이 강윤경

엮음·에세이 : 김종성

펴낸곳 도서출판 갯배

등록 제 423-2017-000004호

주소 강원도 속초시 장성천길 109-28

전화 010-8291-0500

메일 sorak123@naver.com

ISBN 979-11-24372-00-5

2026년 1월 일

프롤로그

우리는 왜 이 이야기를 읽다가, 돌아서면 쓸쓸해질까.

나는 이 단편을 여러 번 읽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읽었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그저 재미있게 읽었다. 그래서 『동백꽃』을 ‘재미있는 이야기’로만 기억해 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다시 이 소설을 읽을 때 예전처럼 가볍지 않았다. 분명히 웃긴 장면인데, 책장을 넘기다 말고 손을 멈추게 되는 순간이 있었다. 마음 한켠이 걸려 멈췄다.

아마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다시 찬찬히 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일을 기억하며 ‘괜찮았던 시절’이라 말한다. 하지만 어떤 이야기들은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 않는다. 『동백꽃』이 그렇다. 이야기를 읽는 순간보다 덮고 난 뒤, 더 많은 생각이 남는다. 읽으면서 미소가 지어지지만, 마음은 늘 한참 뒤에 따라온다.

이 책은, 그 늦게 따라오는 마음을 조금 더 오래 바라보기 위해 다시 만들어졌다.

작가 김유정은?

김유정은 한국 근대문학을 대표하는 단편소설 작가다. 그의 작품엔 유난히 웃음이 많다. 등장인물들은 자주 어긋나고, 말은 엉뚱한 데로 새고, 상황은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소설을 읽으며 자연스럽게 미소짓게 된다. 하지만 그 미소는 여유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김유정은 평생 가난과 병을 안고 살았고, 짧은 생애 동안 삶을 충분히 누릴 시간조차 갖지 못했다.

그럼에도 그의 이야기엔 비극보다 웃음이 먼저 등장한다. 그 웃음은 현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택한 방식이었을지도 모른다.

김유정의 인물들은 자신의 처지를 길게 설명하지 않는다. 왜 힘든지, 왜 서러운지, 왜 화가 나는지를 말하지 않는다. 대신 몸으로 부딪히고, 엉뚱한 반응으로 감정을 비튼다.

웃기지만, 어딘가 아리다. 그래서 그의 소설은 가볍게 읽히지만, 쉽게 잊히지 않는다. 웃음 뒤에 설명되지 않은 감정이 조용히 남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겉보기엔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도 많고, 불편함을 말할 수 있는 통로도 많아졌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웃어 넘긴다. 괜찮은 척하고, 별일 아닌 듯 굴고, 설명하기엔 너무 번거로운 마음들을 농담 속에 숨

긴다. 그 모습은 『동백꽃』 속 인물들과 얼마나 다를까. 그저 시대와 말투만 다를 뿐, 우리는 여전히 말하지 못하고 웃는다.

이 책은 『동백꽃』을 새롭게 해석하려는 시도가 아니다. 작품은 그대로 두되, 읽는 사람의 위치를 달리해 본다. 그때의 내가 아니라, 지금의 내가 읽을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따라가 본다.

이야기는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감정은, 다시 읽을 때마다 새롭게 다가온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작품을 다시 읽는다.

다음에 이어지는 장은 「동백꽃」 원문 전문이다. 아무 설명도 덧붙이지 않고, 이야기 그대로를 먼저 건넨다. 그 다음에야, 우리는 멈춰서게 된다.

목차

1부. 작품 읽기

「동백꽃」

2부. 이야기를 덮고, 멈춰 서다

웃고 나면 마음이 늦게 아파오는 이야기

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웃으며 읽었을까

지금 읽으니 보이는 장면

웃음 뒤에 남는 감정웃음 뒤에 남는 감정


3부 「멈춰 읽기」

이 장면에서 멈춰 서게 된 이유

「동백꽃」에서 밑줄을 긋게 된 문장들

4부. 독자의 시간

멈춰 서서 건네는 질문들



1부. 작품 읽기

「동백꽃」

김유정

『동백꽃』 1936년 《조광》 5월호에 발표된 김유정의 단편소설

동백꽃



오늘도 또 우리 수탉이 막 쫓기었다. 내가 점심을 먹고 나무를하러 갈 양으로 나올 때이었다. 산으로 올라서려니까 등뒤에서 푸드득 푸드득, 하고 닭의 헛소리가 야단이다.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려보니 아니나다르랴, 두 놈이 또 얼리었다.

점순네 수탉(은 대강이가 크고 푹 오소리같이 실팍하게 생긴놈)이 덩저리 작은 우리 수탉을 함부로 해내는 것이다. 그것도 그냥 해내는 것이 아니라 푸드득하고 면두를 쪼고 물러섰다가 좀 사이를 두고 푸드득하고 모가지를 쪼았다. 이렇게뻬를 부려 가며 여지없이 닦아 놓는다. 그러면 이 못생긴 것은 쪼일 적마다 주둥이로 땅을 받으며 그 비명이 킁, 킁, 할 뿐이다. 물론 미처 아물지도 않은 면두를 또 쪼이며 붉은 선혈은 푹푹 떨어진다.

이걸 가만히 내려다보자니 내 대강이가 터져서 피가 흐르는 것같이 두 눈에서 불이 번쩍 난다. 대뺨 지게막대기를 메고 달려들어 점순네 닭을 후려칠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먹고 헛매질로 떼어만 놓았

다.이번에도 점순이가 씹을 붙여 냈을 것이다. 바짝바짝 내 기를을 리느라고 그랬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고놈의 계집애가 요새로 들어서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고렇게 아르릉거리는지 모른다.

나흘 전 감자 건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된 것은 없다. 계집애가 나물을 캐러 가면 갔지 남 울타리 엮는 데 썩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그것도 밭소리를 죽여 가지고 등뒤로 살며시 와서,

"얘!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 않는 수작을 하는 것이다.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앓고 서로 만나도 본체만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런만 오늘로 갑작스레 대견해졌음은 웬일인가. 향차 망아지만 한 계집애가 남 일하는 놈 보구…….

"그럼 혼자 하지 떼루 하디?"

내가 이렇게 내배알는 소리를 하니까,

"너 일하기 좋니?"

또는,

"한여름이나 되거든 하지 벌써 울타리를 하니?"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 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는 그 속에서 깔깔댄다. 별로 우스울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 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 게다가 조금 뒤에는 제 집계를 할금할금 돌아보더니 행주치마의 속으로 껏던 바른손을 뽑아서 나의 턱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언제 구웠는지 더운 김이 획 끼치는 굵은 감자 세개가 손에 부듯이 쥐였다.

"느 집엔 이거 없지?"

하고 생색 있는 큰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은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 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 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너나 먹어라.",

나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너머로 쑥 밀어 버렸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뿐만 아니라 췌근췌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이걸 또 뭐야 싶어서 그때에야 비로소 돌아다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

우리가 이 동네에 들어온 것은 근 삼년째 되어 오지만 여태껏 가 무잡잡한 점순이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흉당무처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 게다가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요렇게 쏘아보더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어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바구니를 다시 집어들더니 이를 꼭 악물고는 엮어질 듯 자빠질 듯 눈독으로 횡하게 달아나

는 것이다. 어찌다 동리 어른이,

"너 얼른 시집을 가야지?"

하고 웃으면,

"염려 마서유. 갈 때 되면 어렵히 갈라구!"

이렇게 천연덕스레 받는 점순이었다. 본시 부끄럼을 타는 계집애도 아니거니와 또한 분하다고 눈에 눈물을 보일 얼병이도 아니다. 분하면 차라리 나의 등어리를 바꾸니로 한번 모질게 후려썰리고 달아날지언정.

그런데 고약한 그 꼴을 하고 가더니 그 뒤로는 나를 보면 잡아먹으려 기를 북북 쓰는 것이다. 설혹 주는 감자를 안 받아먹는 것이 실례라 하면, 주면 그냥 주었지 '느 집엔 이거 없지.'는 다 뭐냐. 그 령잖아도 저희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재를 얻어 땅을 부치므로 일상 굶실거린다.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집이 없어서 곤란으로 지낼 제 집터를 빌리고 그 위에 집을 또 짓도록 마련해준 것도 점순네의 호의였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농사 때 양식이 딸리면 점순이 네한테 가서 부지런히 꾸어다 먹으면서 인품 그런 집은 다시 없으리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곤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열 일곱씩이나 된 것들이 수군수군하고 붙어 다니면

동네의 소문이 사납다고 주의를 시켜 준 것도 또 어머니였다. 왜냐하면 내가 점순이 하고 일을 저질렀다가는 점순네가 노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하지 않으면 안되는 까닭이었다. 그런데 이놈의 계집애가 까닭없이 기를 북북 쓰며 나를 말려 죽이려고 드는 것이다.

눈물을 흘리고 간 담날 저녁나절이었다. 나무를 한 짐 잔뜩지고 산을 내려오려니까 어디서 닭이 죽는 소리를 친다. 이거 뉘집에서 닭을 잡나, 하고 점순네 울 뒤로 돌아오다가 나는 고만 두 눈이 뚱그렸다. 점순이가 저희 집 봉당에 홀로 걸터앉았는데 이게 치마 앞애다 우리 씨암탉을 꼭 붙들어 놓고는

"이놈의 씨닭! 죽어라 죽어라."

요렇게 암팡스레 패 주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대가리나 치면 모른다마는 아주 알도 못 낳으라고 그 불기짱계를 주먹으로 콕콕 쥐어박는 것이다.

나는 눈에 쌍심지가 오르고 사지가 부르르 떨렸으나 사방을 한번 휘둘러보고야 그제서야 점순이 집에 아무도 없음을 알았다. 잡은 참지게 막대기를 들어 울타리의 중턱을 후려치며,

"이놈의 계집애! 남의 닭 알 못 낳으라구 그러니?"

하고 소리를 뱉 질렀다.

그러나 짐승이는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고 그대로 의젓이 앉아서 제 닭 가지고 하듯이 또 죽어라, 죽어라, 하고 패는 것이다. 이걸 보면 내가 산에서 내려올 때를 겨냥해 가지고 미리부터 닭을 잡아가지고 있다가 네 보라는 듯이 내 앞에서 쫓지르고 있음이 확실하다.

그러나 나는 그렇다고 남의 집에 뛰어 들어가 계집애하고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형편이 썩 불리함을 알았다. 그래 닭이 맞을 적마다 지게막대기로 울타리를 후려칠 수밖에 별도리가 없다. 왜냐하면 울타리를 치면 칠수록 울섧이 물러앉으며 뼈대만 남기 때문이다. 허나 아무리 생각하여도 나만 밀지는 노릇이다.

"아, 이년아! 남의 닭 아주 죽일 터이야?"

내가 도끼눈을 뜨고 다시 꺾 호령을 하니까 그제서야 울타리께로 쫓르르 오더니 울 밖에 섰는 나의 머리를 겨누고 닭을 내팽개친다.

"에이 더럽다! 더럽다!"

"더러운 걸 널더러 입때 끼고 있으랬니? 망할 계집애년 같으니"

하고 나도 더럽단 듯이 울타리께를 횡허케 돌아내리며 약이 오를 대로 다 올랐다, 라고 하는 것은 암탉이 풍기는 서슬에 나의 이마뼈 기에다 물지똥을 찍 갈겼는데 그걸 본다면 알집만 터졌을 뿐 아니라 골병은 단단히 든 듯싶다. 그리고 나의 등뒤를 향하여 나에게만 들

릴 듯 말 듯한 음성으로,

"이 바보 녀석아!"

"애! 너 배넛병신이지?"

그만도 좋으련만,

"애! 너 느 아버지가 고자라지?"

"뭐 올라버지가 그래 고자야?"

할양으로 열병거지가 나서 고개를 획 돌리어 바라봤더니 그때까지 올라타 위로 나와 있어야 할 점순이의 대가리가 어디 갔는지 보이지를 않는다. 그러다 돌아서서 오자면 아까에 한 욱을 올 밖으로 또 퍼붓는 것이다. 욱을 이토록 먹어 가면서도 대거리 한 마디 못하는 걸 생각하니 돌부리에 채이어 발톱 밑이 터지는 것도 모를 만큼 분하고 급기야는 두 눈에 눈물까지 불끈 내솟는다.

그러나 점순이의 침해는 이것뿐이 아니다.

닭벼슬을 좋아한다면서도 사람들이 없으면 툼툼이 제 집 수탉을 몰고 와서 우리 수탉과 짝을 붙여 놓는다. 제 집 수탉은 썩 험상궂게 생기고 짝이라면 화를 치는 고로 으레 이길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툼하면 우리 수탉이 면두며 눈갈이 피로 흐드르 하게 되도록 해 놓는다. 어떤 때에는 우리 수탉이 나오지를 앓으니까 요놈의 계

집애가 모이를 쥐고 와서 피어내다가 씹을 붙인다.

이렇게 되면 나도 다른 배차를 차리지 않을 수 없었다. 하루는 우리 수탉을 붙들어 가지고 넌지시 장독계로 갔다. 씹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면 병든 황소가 살모사를 먹고 용을 쓰는 것처럼 기운이 뻗친다 한다. 장독에서 고추장 한 접시를 떠서 닭 주둥아리계로 들여 밀고 먹여 보았다. 닭도 고추장에 맛을 들였는지 거스르지 않고 거진 반 접시 턱이나 곧잘 먹는다. 그리고 먹고 금시는 용을 못쓸 터이므로 얼마쯤 기운이 돌도록 햇속에다 가두어 두었다.

밭에 두엄을 두어 짐 저내고 나서 쉼 참에 그 닭을 안고 밖으로 나왔다. 마침 밖에는 아무도 없고 점순이만 저희 울안에서 헌옷을 뜯는지 혹은 숨을 터는지 웅크리고 앉아서 일을 할뿐이다.

나는 점순네 수탉이 노는 밭으로 가서 닭을 내려놓고 가만히 맥을 보았다. 두 닭은 여전히 얼리어 씹을 하는데 처음에는 아무 보람이 없었다. 멋지게 쪼는 바람에 우리 닭은 또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도 날갯죽지만 푸드득푸드득하고 올라 뛰고 뛰고 할 뿐으로 제법 한번 쪼아 보지도 못한다.

그러나 한번엔 어떤 일인지 용을 쓰고 펄쩍 뛰더니 발톱으로 눈을 하비고 내려오며 면두를 쪼았다. 큰 닭도 여기에는 놀랐는지 뒤로 멈설하며 물러난다. 이 기회를 타서 작은 우리 수탉이 또 날쌔게 덤벼들어 다시 면두를 쪼니 그제서는 감때사나운 그 대강이에서도 피

가 흐르지 않을 수 없다.

옳다 알았다, 고추장만 먹이려는 되는구나 하고 나는 속으로 아주 쟁그러워 죽겠다. 그때에는 뜻밖에 내가 닭쌈을 붙여놓는 데 놀라서 을 밖으로 내다보고 싶던 점순이도 입맛이 쓰지 눈썹을 찌푸렸다.

나는 두 손으로 불기 짝을 두드리며 연방,

"잘한다! 잘한다!"하고, 신이 머리끝까지 뻗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낮이 풀리어 기둥같이 묵묵히 서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큰 닭이 한번 쪼인 양갸음으로 호들갑스레 연거푸 쪼는 서슬에 우리 수탉은 찢끔 못하고 막 꿩는다. 이걸 보고서 이번에는 점순이가 깔깔거리고 되도록 이쪽에서 많이 들으라고 웃는 것이다.

나는 보다 못하여 덤벼들어서 우리 수탉을 붙들어 가지고 도로 집으로 들어왔다. 고추장을 좀더 먹였더라면 좋았을 걸, 너무 급하게 쌈을 붙인 것이 퍽 후회가 난다. 장독계로 돌아와서 다시 턱밑에 고추장을 들이댔다. 흥분으로 말미암아 그런지 당최 먹질 않는다.

나는 하릴없이 닭을 반듯이 눕히고 그 입에다 꺾린 물부리를 물리었다. 그리고 고추장물을 타서 그 구멍으로 조금씩 들여 부었다. 닭은 좀 괴로운지 킁킁하고 재채기를 하는 모양이나 그러나 당장의 괴로움은 매일 같이 피를 흘리는 데 뭇 게 아니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한 두어 종지 가랑 고추장물 먹이고 나서는 나는 고만 풀이 죽었다. 상상하던 닭이 왜 그런지 고개를 살며시 뒤틀고는 손아귀에서 빠드러지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가 볼까봐서 얼른 화에다 감추어 두었더니 오늘 아침에서야 겨우 정신이 든 모양 같다.

그랬던 걸 이렇게 오다 보니까 또 씹을 붙여 놓으니 이 망할계집애가 필연 우리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제가 들어와 화에서 꺼내 가지고 나간 것이 분명하다.

나는 다시 닭을 잡아다 가두고 염려는 스러우나 그렇다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지 않을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소나무 삭정이를 따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암만해도 고년의 목쟁이를 돌려놓고 싶다. 이번에 내려가면 망할 년 등줄기를 한번 되게 후려치겠다 하고 싱둥경둥 나무를 지고는 부리나케 내려왔다.

거지반 집에 다 내려와서 나는 호드기 소리를 듣고 발이 딱멈추었다. 산기슭에 널려 있는 굵은 바윗돌 틈에 노란 동백꽃이 소보록하니 깔리었다. 그 틈에 끼어 앉아서 점순이가 청승맞게시리 호드기를 불고 있는 것이다. 그보다도 더 놀란 것은 고 앞에서 또 푸드득, 푸드득, 하고 들리는 닭의 헛소리다. 필연코 요년이 나의 약을 올리느라고 또 닭을 집어내다가 내가 내려올 길목에다 씹을 시켜 놓고 저는 그 앞에 앉아서 천연스레 호드기를 불고 있음에 틀림없으리라.

나는 약이 오를 대로 올라서 두 눈에서 불과 함께 눈물이 펑 쏟아

졌다. 나뭇지게도 벗어 놀 새 없이 그대로 내동댕이치고는 지게 막 대기를 뺏치고 허둥허둥 달려들었다.

가까이 와 보니 과연 나의 짐작대로 우리 수탉이 피를 흘리고 거의 빈사지경에 이르렀다. 닭도 닭이려니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없이 고대로 앉아서 호드기만 부는 그꼴에 더욱 치가 떨린다. 동네에서도 소문이 났거니와 나도 한때는 격실격실히 일 잘하고 얼굴 예쁜 계집애인 줄 알았더니 시방 보니까 그 눈깔이 꼭 여우새끼 같다.

나는 대뜸 달려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수탉을 단매로 때려 었었다. 닭은 푹 었어진 채 다리 하나 꼼짝 못 하고 그대로 죽어 버렸다. 그리고 나는 멍하니 섰다가 짐순이가 매섭게 눈을 홉뜨고 닥치는 바람에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이놈아! 너 왜 남의 닭을 때려죽이니?"

"그럼 어때?"

하고 일어나다가,

"뭐 이 자식아! 누 집 닭인데?"

하고 복장을 떼미는 바람에 다시 벌렁 자빠졌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 분하기도 하고 무안도스럽고, 또 한편 일을 저질렀으니, 인젠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해야 될는지 모른다.

나는 비슬비슬 일어나며 소맷자락으로 눈을 가리고는, 얼굴에 영하고 울음을 놓았다. 그러나 점순이가 앞으로 다가와서

"그럼 너 이담부텀 안 그럴 테냐?"

하고 물을 때에야 비로소 살길을 찾은 듯싶었다. 나는 눈물을 우선 씻고 뭘 안 그러는지 명색도 모르건만,

"그래!"

하고 무턱대고 대답하였다.

"요담부터 또 그래 봐라, 내 자꾸 못살게 굴 테니."

"그래 그래 이젠 안 그럴 테야!"

"닭 죽은 건 염려 마라, 내 안 이를 테니."

그리고 뒷에 떠다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펍쓰러진다. 그 바람에 나의 몸뚱이도 겹쳐서 쓰러지며, 한창피어 퍼드러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폭 파묻혀 버렸다.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에 나는 땅이 꺼지는 듯이 온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

"너 말 마라!"


"그래!"

조금 있더니 요 아래서,

"점순아! 점순아! 이년이 바느질을 하다 맡구 어딜 갔어?"

하고 어딜 갔다 온 듯싶은 그 어머니가 역정이 대단히 났다.

점순이가 겁을 잔뜩 집어먹고 꽃밑을 살금살금 기어서 산알로 내려간 다음 나는 바위를 끼고 엉금엉금 기어서 산 위로 치빠지 않을 수 없었다.



2부. 이야기를 덮고, 멈춰 서다

웃고 나면 마음이 늦게 아파오는 이야기



이 소설을 덮고 나서 가장 먼저 떠오른 감정은 의외로 아픔이 감동이 아니라 멍함이었다. 가벼운 미소가 떠오르긴 했다. 그럴 만한 장면들이 분명 있었으니까.

서로 엇갈리는 마음, 말보다 먼저 움직이는 행동들, 끝끝내 맞닿지 못하는 두 사람의 거리. 그런데 이번에는, 읽고 나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했다. 어느 장면에선 책장을 넘기지 못하고 한참을 멈춰 있었다.

예전에는 “재미있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읽고 지나갔다. 하지만 지금은, 그 경쾌함 아래 깔린 어떤 마음이 자꾸 걸렸다. 처음부터 무겁게 다가오는 이야기는 아니다. 말투는 익숙하고, 인물들은 어딘가 영똥하다. 그러다 문득, 어디선가 마음이 조용히 멈춘다.

이야기 속 장면들은 감정이 다 말로 설명되지 않을 때 삶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보여준다. 닭을 쫓고, 괜히 시비를 걸고, 특 내

뺨는 말에 마음이 묻혀 있다.

그건 누군가를 웃기기 위해 만들어진 장면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라도 표현해야 했던 마음의 결과였다. 누구도 자신의 감정을 끝까지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갖고 있지 않았다. 마음이 아픈 건 등장인물들이 불행해서가 아니다. 그들은 자기 감정을 붙잡고 들여다볼 여유가 없다.

왜 화가 나는지도, 왜 서러운지도, 왜 억울한지도 정리할 말이 없다.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 그래서 이 소설은 감정을 위로하거나 정리해주지 않는다.

대신, 읽는 사람을 잠시 멈추게 만든다. 말이 빠져 있는 자리를 오래 들여다보게 하고, 속도가 느려진 순간에야 비로소 마음이 따라 오게 만든다. 그래서 웃는다. 웃고 넘긴다. 그리고 그 웃음은, 읽는 사람에게로 넘어온다.

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웃으며 읽었을까



“촌스러워서 웃기다.”

“옛날 사람들 이야기라 순박하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이 소설을 ‘촌스러움’으로만 설명해버리면 너무 많은 것이 빠져나간다. 이야기 속 인물들이 우스워 보이는 건 ‘촌’에 살아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설명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표현할 말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서운하다, 억울하다, 상처받았다, 불편하다, 선을 넘었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쓴다.

하지만 『동백꽃』 속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다. 서운해도, 좋아해도, 불안해도 말로는 옮기지 못했다. 그래서 감정은 늘 먼저 행동으로 튀어나온다. 닭을 건드리고, 소리를 지르고, 괜히 시비를 걸고, 엉뚱한 방향으로 화를 낸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웃는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찌면 말을 잃은 사람을 바라보는 웃음에 가깝다. 이 소설이 웃긴 건, 인물들이

바보 같아서가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설명할 기회를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었다. 가난을 말할 적절한 언어도, 분노를 정리할 문장도, 사랑을 표현할 여유도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말 대신 웃었다. 그 웃음이 유머처럼 보였을 뿐이다. 우리가 웃으며 이 이야기를 읽어온 이유는 그 웃음이 낯설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설명하지 않고 넘기는 것. 말하지 않고 웃어버리는 것. 상처를 농담으로 바꾸는 것. 그 방식은, 지금의 우리 안에도 여전히 남아 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지금 읽으니 보이는 장면



예전에는 이 소설을 사랑 이야기로 기억했다. 서툰 두 사람이 마침내 마음을 확인하는 이야기. 동백꽃 속에 함께 쓰러지는 장면이 푹푹하고, 설레는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읽으니 눈에 먼저 들어오는 건 사랑이 아니다. 생활이다.

이야기 속에는 늘 일이 있고, 닭이 있고, 식량을 얻을 땅이 있고, 살 집 걱정이 있다. 사랑은 그 모든 것 사이에 조용히 끼어 있다. 언제든 밀려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마지막 장면보다 그 앞에 깔린 장면들이 더 오래 남았다.

땅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어른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 이 모든 것이, 사랑보다 먼저 자리하고 있다.

나이가 들고, 삶을 조금 겪고 나서 다시 읽게 되었다. 그랬더니 소설의 무게 중심이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사랑은 여전히 있다. 하

지만 이제는, 그 사랑이 얼마나 불안한 기반 위에 놓여 있는지 보인다. 설렘은 스쳐 지나가지만, 생활은 계속된다. 그래서 이제는 동백꽃 숲 장면이 마냥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는다. 아름답지만, 그만큼 위태롭다.

그 장면이 끝나고 나면 두 사람은 다시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나는 이제 안다.

웃음 뒤에 남는 감정



이 소설을 다시 읽으며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문장이 하나 있다.

“그때는 그렇게 사는 수밖에 없었다.”

작품 속 어디에도 그대로 등장하진 않지만, 이야기 전체를 조용히 관통하는 문장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선택하지 않았다. 아니, 선택할 수 없었다. 화를 낼지 말지, 좋아한다고 말할지 말지.


그 결정조차 온전히 자신에게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다.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종종 ‘정겨운 가난’으로 기억한다.

힘들었지만 따뜻했다, 가난했지만 인간미가 있었다, 서로 도우며 살았다. 그렇게 정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정리해버리는 순간,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의 고단함은 지워진다.

웃음만 남고, 그 웃음이 만들어진 이유는 사라진다. 다시 읽으며 나는 예전의 내 독서를 돌아보게 되었다. 나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그저 웃으며 소비해왔을까. 그리고 그 웃음 뒤에 남은 감정들을

얼마나 쉽게 지나쳐 왔을까. 『동백꽃』은 위로하지 않는다. 대신 멈추게 한다. 웃음이 사라진 자리,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감정을 한 번쯤 바라보게 만든다.

그래서 이 책의 2부는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이야기를 설명하지도, 감정을 정리해주지도 않는다. 다만, 미소 짓고 책을 덮은 뒤, 마음이 늦게 아파오는 이유를 각자가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줄 뿐이다.



3부 「멈춰 읽기」

이 장면에서 멈춰 서게 된 이유



이 소설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은 동백꽃이 훑날리는 숲속이 아닐까. 두 사람이 엉겁결에 함께 쓰러지는 마지막 장면.

하지만 이번에 다시 읽으며 나는 그 장면보다 그 앞에서 더 오래 멈춰 서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 장면은 기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잠깐 멈춘 숨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야기 속 두 사람은 그 순간에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다. 말 대신 몸이 먼저 닿고, 말 대신 숨이 먼저 영킨다. 그러나 그 장면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땅 문제는 그대로이고, 집 걱정도 사라지지 않으며, 어른들의 시선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 장면을 '해결'이 아니라 잠시 멈춘 자리로 읽게 되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장면을 해피엔딩처럼 기억한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이 장면을 이렇게 받아들였다. 더 이상 싸우지 않기 위해, 더 이상 말로 다치지 않기 위해, 잠시 멈춘 순간.

그래서 이 장면은 달콤하면서도 쓸쓸하다.

「동백꽃」에서 밑줄을 긋게 된 문장들



1. “너 말 마라.”

말은 끝까지 돌아가지 못하고, 감정만 그 자리에 남았다.

2. “이년아! 남의 닭 아주 죽일 터이야?”

좋아한다고 말하는 대신, 화를 냈다. 그게 털 다치는 방식이었다.

3. “그 속에서 깔깔댄다.”

웃음은 말하지 못한 마음을 얼버무리는 데 가장 빠른 방법이었다.

4. “나무를 하러 가지 않을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살을 버티는 일이, 마음을 마주하는 일보다 먼저였다.

5. “그냥 주었지, ‘느 집엔 이거 없지’는 다 뭐냐.”

말은 자꾸 빛나가고, 마음은 그 틈에서 길을 잃었다.

6. 노란 동백꽃 속에 폭 파묻혔다.

설렘은 스쳤고, 일상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다시 이어졌다.

7. “산알로 내려간 점순이, 산 위로 도망친 나.”

잠시 숨을 골랐지만, 결국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8. “그 뒤로는 나를 보면 잡아먹으려 기를 북북 쓴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감정은 끝나지 않았다.

9. “일상 급실거린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조건이었다.

『동백꽃』은 짧은 이야기지만, 그 안엔 끝나지 않은 마음이 있다.

이 밑줄들은 그 순간의 감정을 잠시 붙잡아 둔 자리이다.



4부. 독자의 시간

멈춰 서서 건네는 질문들

나는 요즘, 어떤 일을 웃음으로 넘기고 있는가?

그 웃음 뒤에, 말하지 못한 감정은 무엇인가?

지금의 나는, 감정을 설명할 언어를 가지고 있는가?

예전에는 괜찮다고 넘겼지만, 지금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가?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 사이에서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에필로그

이야기는 끝났지만, 감정은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

이야기를 다 읽고 나면 무언가 분명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조금 더 흐릿해졌다. 가볍게 지나갔다고 여겼던 장면들에서, 마음이 붙잡힌다. 그 웃음이 정말 가벼웠던 걸까. 아니면, 그 순간에는 그것밖에 선택할 수 없었던 걸까. 『동백꽃』은 끝까지 말해주지 않는다.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도 젊었고, 그래도 풋풋했고, 결국엔 마음이 통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 순간이 삶을 바꿨다고는 말하지 못하겠다.

동백꽃은 피었고, 흩어졌고, 생활은 다시 이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달콤하게 끝나지 않는다. 한순간 멈춘 자리에서 끝난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이야기를 지금의 언어로 덮는다. 그때 힘들었지만, 지금은 웃으며 말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어떤 기억들은 그렇게 정리되지 않는다. 『동백꽃』은 그런 이야기다.

이 소설을 다시 읽으며 나는 문득 그런 생각을 했다. 그 시절의 사람들은 살만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어서 미소를 지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 표정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다. 이 책은 그 미소를 비난하지 않는다.

동정하지도, 미화하지도 않는다. 다만, 그 감정이 놓여 있던 자리

를 잠시 비워둔다. 그 자리에 각자의 감정이 조용히 내려앉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책을 덮고 나서 마음 한쪽이 조금 저릿해지면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 울림은 잘못 읽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닿았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여전히 일상 속에서 웃고, 미소 짓고, 별일 아닌 듯 살아간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저릿한 마음을 서둘러 정리하지 않아도 되고,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된다. 삶은 늘 이어지고, 이야기도 늘 끝나지 않는다.